

무엇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가? (3)

What is Made us a Criminal? (3)

—국제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朴舒弘/단 · 회산종합건축사사무소

by Park, Suh-Hong

올해로 서울 정도 600년의 해를 맞았다. 동시에 새해는 정부가 약속한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의 준비의 해이기도 하다.

정치적 비중이 높긴하였지만 집권1기를 비교적 성공리에 마친 김정권이 주도할 내년의 개혁과 변화의 물결은 금년의 그것에 못지 않을 강도를 갖고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등 각 분야에 깊은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주지의 사실이다. 더하여 연전의 우리나라의 UN가입을 전후로 한 급변하는 세계대세는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의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국외자의 입장에 머무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2차대전 이후 서방국들은 1930년대 블록경제의 재현을 막기 위해 미국의 주도 아래 다자주의 국제경제질서를 수립했다.

비록 경제적인 논리와 요구에 의해 출발된 것이긴 해도 이와 같은 세계의 질서는 1970년대 이후 쌍무주의 및 지역주의의 관행에 의해 점차 약화된 입지를 갖기까지 반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인류의 복지에 기여하여 왔다.

하지만 다자주의 무역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UR(우루과이 라운드)를 효시로 세계는 다시 분화의 조짐을 보이면서 끼리끼리의 해쳐모여 작업이 진행중이다. 물론 그런 움직임의 이면에는 산업혁명이후의 앵그로색슨에 의한 1세 기간의 세계지배와 이어진 게르만의 수십년, 그후 양키의 50년간의 세계지배가 1980년대를 기점으로 끝나버렸다는 그들 나름의 절박함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북미의 공동체인 NAFTA는 현실화 하고 있고 아프리카도 남북을 통합하는 공동체가 준비중이며, 유럽을 하나로 묶는 조약은 곧 발효단계에까지 와 있다. 아시아에는 아세안의 모임이 있고 아랍권을 통합하는 작업도 곧 가시화 되리라는 예측하에서 우리나라의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참여도 그러한 줄기기의 하나로 이해되면서 대통령의 「국제화」선언 역시 당연한 이 시기의 시대적 논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새삼스러울 것 없는 얘기지만 국제화에 대한 인식과 요구는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 및 의식에 깊이 침투되어 있다. 1980년대의 해외여행 자유화에 상당부분 의거한 것이긴 해도, 자원이 부족하고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대외지향적 전략을 갖고 갈 수밖에 없고 따라서 가능한 한 넓은 지역에서 개방적 거래질서가 유지되는 환경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우리 모두 심정적으로 공유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마이클잭슨의 공연이 거부되는 각론에 접어들어서는 우리 모두가

「반국제화」의 대열에 일사불란하게 서 있는 것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관료의 경직성>에 있다.

그레그 전주한대사가 말한 「한국의 관료들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 한국의 국제화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특히 이 부분에 우리는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관료의 경직성은 자연스럽게 각종 행정규제와 정책의 일관성 부재라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놈의 집한 채 짓는데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까다로우냐?」 우리 모두 한 번 이상은 들어 봤음직한 이러한 경구뒤에 숨은 우리 모두의 비애를 그들은 외면하고 있다.

미(美)적 감수성만을 키워나갈 시기에 젊은 건축인들로 하여금 좌절하게끔 만드는 그들 관료들의 경직스런 폭거는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서울이 과연 자랑할 만한 도시로 되어 있는 것인가.

국제화라는 것이 구호를 크게 외치거나 큰 행사를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더욱이 급작스럽게 찾아온 몇 번의 외국여행의 기회가 국제화로 의 길에 아님을 분명하다. 유럽중세의 도시들을 바라보며 그 정제된 아름다움에 감격해서 우리도 국제화해서 저렇게 하자는 큰 목소리는 더욱 아니다. 오늘날의 그들 도시는 우리가 단순히 바라다보기만 해서는 잘 보이지 않는 자유인들이 도시주인이 되어서 만든 오랜 역사를 포용하고 있다. 그들 주민들의 자유스러움 이면에는 오랜 옛날 부르조아의 탄생을 잉태한 성(城)의 형성이 있었고, 그 성의 봉건 영주들로부터 탈출한 농노들이 있었다. 그 농노들의 자유를 쟁취하려는 치절한 삶의 모습, 바로 그것에서 오늘날 도시의 모습이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국제화의 길은 열리리라고 믿는다.

단일민족이라는 특수성에서 오는 것인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묘한 이중성과 배타성이 있다. 외국인들의 우리에게 대한 투자를 경제침략의 아류로 인식하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대중국이나 동남아의 투자를 우리의 영토확장 정도로 생각하는지, 호연지기를 뽐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한 민족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주변을 둘러보고 보다 먼 곳을 보게 됨은 필지의 사실이라고 볼 때, 올바른 국제화의 길은 먼저 우리 것에 대한 확인과 긍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

대외적인 민족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오랜 민족의 염원이 해소될 수 있는 통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문제점들이 생기기라는 것 또한 예견된다. 도시에서 주거에 이르기까지 여태까지의 우리의 삶의 근저를 뿌리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한다면 이제부터라도 폭넓은 준비가 필요함은 물론 대책마련을 위한 거국적인 의견 수렴에 우리 협회가 일익을 담당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한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국제화를 바라보아야만 하는 또 하나의 단서가 있다고 생각된다.

”

자기 것을 사랑하고 긍정치 못하는 자는 결코 남을 사랑하고 긍정해 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자기 것을 이해하고 긍정치 못하는 민족은 당연히 세계로 뻗어나갈 수가 없다. 그런면에서 국제화를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우리됨을 이해하고 그를 긍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제와 한국방문의 해 같은 구호를 재론할 필요도 없이 서울이 가장 서울답게 부각됨은 서울의 지방화—보다 작은 서울을 위한— 라는 것은 이제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서울의 지방적 특색 —달리 말해 서울의 건축적 특징— 이야말로 더 늦기전에 우리 세대가 준비하면서 고쳐하여야 할 과제중의 과제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런 건축공간이 수용하는 특징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삶의 공간일 수밖에 없고 보편적이며 대중적인 삶의 본체를 추구하는 집요한 자세야말로 자연스러운 국제화의 첩경이기 때문이다.

오랜시간 우리들은 「집」에 대한 평가를 하드웨어적 기준으로만 접해왔다. 건축을 한다는 우리들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 몇 평짜리 집이며, 평당 얼마짜리냐는 물음만이 있을 뿐이지 벽돌이나 거실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부엌이 어떤 특징으로 디자인 되었느냐는 물음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우리 주변에 세워지는 집들의 수명(Life Cycle)을 거론할 때에도 물리적 수명만을 거론할 뿐이지 점차 짧아지고 있는 사회적 수명은 별로 언급을 안한다.

매일 접하고 있는 건축자재에 있어서도 외국산으로 상당부분 이뤄져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그들 외산자재의 소프트웨어의 축을 이루는 요소에 대해서는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있다.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선진국들은 이미 자국의 영역을 뛰어 넘어 국제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지적소유권이나 고유브랜드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화급을 다투게 되었고 이태원상가에서 구입한 프랑스 고유브랜드의 가짜상품을 프랑스 출입국 관리소에서 사범처리하겠다는 결정은 우리에게 놀라움을 넘어선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과연 고유브랜드가 없는 것인가. 개방화시대에 건축의 국제화란 외국업체나 물건의 우리나라에의 진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나가야만 하고 나아갈 수가 있다. 다만 사고의 혁신적 대변혁만 이뤄진다면 가능하다. 또한 사고의 대전환이란 것도 우리 주변의 가까운 것에서부터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

온돌이란 우리 전통의 난방방식이지만, 그걸 약간 시스템화 시켜 추운 북방으로 진출한다면 훌륭한 상품이

되리라는 걸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바닥 난방방식의 세계적 권위자들이 아니겠는가. 콧대 높은 일본주택업자들이 그들 북방지역의 난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기웃거리면서 바닥온돌 시스템의 설계 사양을 배우려는 것은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 하기에 충분하다고 믿는다.

우리는 통상 우리의 것을 거론할라치면 전통건축을 들고 그 아름다움을 찬양한다. 또 그런 의견상의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우리 선인들의 공간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기도 한다. 계층으로 분화된 공간의 질서에 있어서나 그 질서에서 재편된 다목적 사용을 위한 공간의 지혜와 그런 지혜에서 유추되어 나온 각 상세에 이르기까지 정점인 미(美)를 향한 노력은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건축의 감수성만을 축적해 나가던 시절에 진한 감동을 받았다고 하여서, 아니 과거의 사회 분위기가 그런 것을 요구했다고 하여서 무조건 형태를 재현하는 행위는 우리의 건축적 상황에 조금의 도움도 못된다는 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왜냐하면 조선조를 살았던 사람의 삶과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삶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민족적 자기공정이란 것이 우리의 시선을 넓히는 초석은 될지언정 그것이 완성일 수는 없다. 그것의 완성을 위해서는 과거의 배타적 민족주의자들의 내부지향적 시각이 아닌 밖에서의 우리를 보는 「세계속의 우리」라는 시각이 조명될 수 있어야 하겠다.

지정학적으로 우리의 위치가 점점 더 동북아의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물론 북한도 포함하여)라는 방대한 잠재시장을 배후에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한 사실은 중국과 대만이 민족단위의 경제권을 형성해 가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우리가 북한과의 한반도 경제권이 수립될 수 있다면 더욱 눈여겨 보아야 할 사실일런지 모른다. 대외적인 민족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오랜 민족의 염원이 해소될 수 있는 통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문제점들이 생기기라는 것 또한 예견된다. 도시에서 주거에 이르기까지 여태까지의 우리의 삶의 근저를 뿌리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한다면 이제부터라도 폭넓은 준비가 필요함은 물론 대책마련을 위한 거국적인 의견 수렴에 우리 협회가 일익을 담당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한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국제화를 바라보아야만 하는 또 하나의 단서가 있다고 생각된다.